

내 마음에 날마다 뜨는 무지개

글 최효림(고양시 일산서구)

내 마음의 하늘에는 날마다 무지개가 뜹니다.
동산에 해 뜰 때 내 마음에는 일곱 색깔 무지개가 떠오릅니다.

빨간색 띠는 내 마음에 열정을, 주황색 띠는 내 마음에
인내를, 노란색 띠는 내 마음에 평화의 소식을 전합니다.
초록색 띠는 내 마음에 쉼터를, 파란색 띠는 내 마음에
희망을 이야기합니다. 남색 띠는 내 마음에 겸손의 자리를
편합니다.

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은 외롭고 위험하지만
남을 섬기고 겸손해지는 것은 즐겁고 안전하다며
낮은 곳에 자리를 펴고 앉으라 합니다.

보라색 띠는 내 마음에 사랑의 단비를 내립니다.
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 것은 가진 것이 없고
만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해서랍니다.

우리도 날마다 저마다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무지개를
띄워보면 어떨까요.

